

기준금리 1년 새 2%p 폭등...가계·중기 부담 가중

한은 2.25%→2.50% 4회 연속 인상 ... 연내 3%까지 상향 전망
광주·전남 가계대출 잔액 58조3847억·중기 대출 64조725억원

주택담보대출 금리 7%대 눈앞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지난 1년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0%에서 2.50%로 2.00%포인트나 뛰었다. <관련기사 9면>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한 대응책이리라지만,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0%까지 오를 가능성이 짙어 가계 대출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민의 경우 '정부 대출 조이기'에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대출 연체율마저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준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2.25%에서 0.25%포인트 올린 2.50%로 상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올해 들어 4차례 연속 올렸는데, 이는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2년 5개월여 전 금리를 0.5%포인트나 낮췄지만, 물가가 치솟으면서 금리를 높여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라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하고 금융 투자에 나선 다중채무자와 20~30대, 자영업자 등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모두 1757조9000억원에 이른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기준금리 조정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비중은 78.1%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은행 외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도 같다고 가정하면, 한은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고 대출금리가 그만큼 올라도 산술적으로 가계대출자 이자 부담은 3조4323억원(1757조9000억원×78.1%×0.25%) 늘어난다.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금통위가 사상 최저 수준(0.50%)까지 낮아진 뒤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랐다. 이후 올해 7월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포함해 이날까지 모두 2.00%포인트(0.25%포인트×8) 인상됐다. 1년 동안 늘어난 이자만 27조4584억원 안팎(3조4323억원×8)이라는 셈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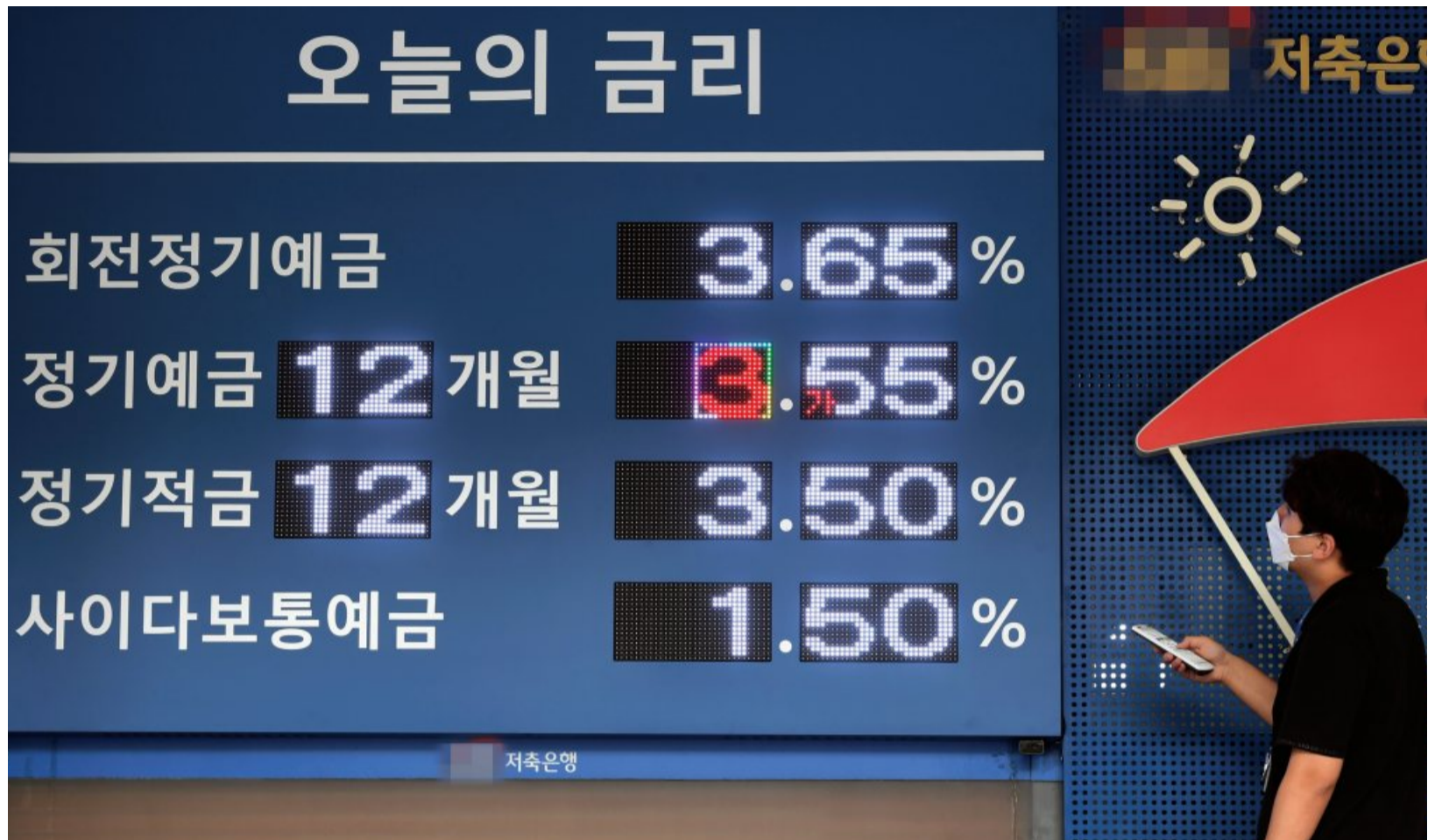
앞서 한은은 지난해 9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한 명당 연이자 부담이 2020년 말 289만6000원에서 각 305만8000원, 321만9000원으로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2.00%포인트 인상에 따른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128만8000원 정도다.

금리 상승기에도 광주·전남지역민의 부채는 되레 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8조38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6조7479억원)보다 2.9%(1조6368억원) 증가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 폭은 더 크다.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지난 6월 기준 대출 잔액은 64조725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55조6491억원)에 비해 15.1%(8조4234억원) 늘었다.

지역민들의 대출 연체율도 전국 평균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6월 기준 중소기업 예금은행 대출 연체율은 광주 0.32%·전남 0.27%로, 전국 평균(0.24%)을 웃돌았다. 광주는 서울(0.38%)에 이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금리 인상 기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우리 지역 향후 주택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상 결정했다. 네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25일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저축은행 직원이 금리 변동 전광판을 조정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소상공인에 신규·대환자금 58조원 공급...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중기부, 경영개선 2000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2000만원의 경영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총 58조원 상당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전환과 20~30대 창업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고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한다.

우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8조원 규모

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대환자금 8조7000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한다.

또 최저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특별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저금리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

극한 치달은 조선훈대 내홍... 해법은 없나 ▶6면

복스- '동물의 직업' '연예인의 결과속' ▶14·15면

세계 높이뛰기 '빅2' 우상혁·바심 재대결 ▶18면

지'도 마련한다. 폐업 위기 업체에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 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영개선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폐업자를 대상으로는 철거비 지원과 함께 심리 치유·컨설팅을 제공하고 법률 자문을 확대한다.

이 밖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총 25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전주지방검찰청 부장 검사(사법연수원 297기)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 8.

변호사 **신현성** 올림

◆ 주요 학력 및 경력 ◆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92학번)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방문학자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97기 수료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수석검사(특수 전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3부 검사
- BBK(이명박 특검법)특검 파견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수석검사(특수 전담)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광주고검검찰청 부장검사

■ 업무개시: 2022. 8. 17 ■ 개업장소: 광주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402호 ■ 대표전화: 062) 223-6200 팩스: 062) 223-6202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